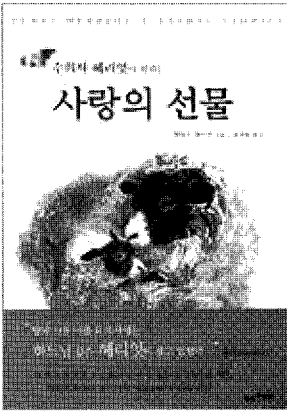


수의과대학 학생들이 추천하는 책



- 저자 : Herriot, James
(번역 : 공경희)
- 원제 : James Herriot's animal stories
- 출판사 : 서울, 황금부엉이
- 출판년도 : 2005년

수의사 헤리엇이 전하는 사랑의 선물을 읽고

- 김익준 -

한국에서는 매년 약 500여명의 사람들이 수의대에 입학하고 있다. 이 중에서 반 이상은 임상을 자신의 진로로 선택하게 된다. 임상 수의사에게 있어서 임상을 한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질까? 그에 대한 해답은 이 책에서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은 20세기에 활동했던 수의사의 일상을 옴니버스 식으로 한 책에 담았다. 이 수의사가 활동 했던 시기는 아직 항생제가 발명 되지 않았고 지금은 흔히 쓰이는 라텍스 장갑 등의 대한 이야기는 전혀 찾아 볼 수 없다. 하지만 주인공인 헤리엇과 그의 환축의 주인 사이에는 따뜻한 사람이 숨 쉬고 있다. 한 이야기만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어떤 농부가 있었다. 그는 마이어틀이라는 개를 키우고 있었고 개를 무척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때 마이어틀이 아픈 것처럼 보였다. 그는 헤리엇에게 전화를 했고 헤리엇은 자다깨어 새벽 한시에 왕진을 갔지만 사실 마이어틀은 아프지 않았다. 아프지 않았다고 주인에게 이야기 했어도 주인은 자신이 아프게 했다고 자책하였고 헤리엇은 단순한 비타민 제를 약이라고 이야기하여 개에게 주고 집으로 돌아왔다. 이런 일이 계속되었고 그때마다 비타민제를 먹이고 왔다. 하지만 마이어틀이 새끼를 낳게



천 명 선

(주)미래세움

smash93@hanmail.net



되어 실제로 아프게 되었고 이때도 역시 짜증 내지 않고 해리엇은 갔다. 그래서야 농부는 해리엇에게 미안하다고 못믿고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해리엇은 독자 들에게 말한다. 이는 환축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환축의 주인의 마음을 치료 하는 일이다. 이 일화는 우리에게 수의사로서의 자세를 이야기 해준다. 수의사는 단순히 치료대상을 동물만을 삼아서 치료만하는 사람이 아니라 동물뿐만 아니라 그 동물을 믿고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속까지 치료 해주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 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이는 수의사로서 동물이 아닌 사람들과의 교류 속에서 따뜻함을 이야기 하고 있다. 단순히 동물이 사람을 의지 하여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사람 역시도 동물에 의지 하여 서로 의지 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이다. 요즘 동물병원을 개업하기 원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동물 병원 특강을 들어보면 다들 경영에 대하여 이야기 하고 있다. 어떻게 하면 저비용 고효율을 낼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하면 고객들에게 친절하게 대하여 고객들이 다시 찾게 되게 할 것인가 등이 그 대표적인 예가 될 것이다. 하지만 이때 것 그 누구도 고객들에게 진실 되게 대하라 고객들의 상처를 치유하라 등의 이야기는 전혀 이야기 한 적이 없다. 한사람의 수의사라면 물론 동물을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이에서 동물과 인간이 더욱 교류 하고 사랑할 수 있는데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싶다.



- 저자 : Rowlands, Mark
(번역 : 윤영삼)
- 원제 : Animals like us
- 출판사 : 서울, 달팽이
- 출판년도 : 2004년

동물, 윤리, 그리고 수의사

〈마크 롤렌즈의 「동물의 역습(원제:Animals Like Us)」을 읽고〉

- 김철민 -

나는 서점에서 책들을 이리저리 훑어보고 구입하는 것을 좋아한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이고 사람들이 어떤 주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한 눈에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마음에 와 닿는 책이 없나 이리저리 둘러보던 중 이 책을 보았고, 목차를 본 후 바로 구입을 결정했다. 평소에 아무런 비판적 접근 없이 대해 왔던 문제들에 대해 논리적으로 반대 측 의견을 제시한 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는 현재의 분위기로 봤을 때 빠른 시일 내에 동물 윤리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될 것은 어쩌면 당연하고, 나는 미래의 수의사로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확고한 견해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책을 선택하였다.

이 책은 본격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전에 먼저, 동물의 고통, 감정, 그리고 도덕적 지위에 대한 논의를 찬찬히 논의한다. 데카르트, 피터 싱어 등 고전과 현대를 망라하는 여러 철학자들의 논의를 인용하면서 여러 논거를 제시하였는데 행동학적 증거로 동물은 인간과 같이 고통과 욕망 등을 가진다는 것과, 도덕적으로 인간과 동물은 차이가 없다는 평등 원리가 주로 사용되었다. 이에 예상되는 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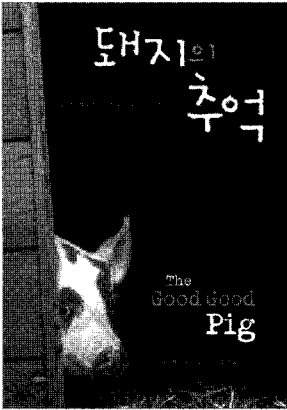
대 측 논거에 대해서도 반론을 제시하면서 차분히 자신의 의견을 피력해 나간다.

책의 본론에 들어가서는 축산업, 동물 실험, 동물원, 사냥에서의 문제점과 심지어는 반려동물의 윤리와 권리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데, 최소한의 기본권마저 누리지 못하는 산업동물의 사육 실태, 그리고 불필요한 동물실험을 강행하는 기업과 연구시설을 비롯해 교육상의 이점과 희귀동물의 종 보존이라는 명목으로 동물을 가두어 사육하는 동물원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들에게 인류가 할 일은 자유를 주는 것이라는 점을 말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저자가 제시한 사실적 증거들은 독자로 하여금 반항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증거들이지만 - 미처 알지 못했던 잔인한, 고통스러운 과정이 동물들을 상대로 합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 그 증거들을 바탕으로 펼친 필자의 주장은 약간은 극단적인 면이 있었기에 거북한 느낌이 들었다. 특히 필자는 채식주의와 동물 권리 운동에 많은 부분을 할애하였는데, 애완동물이 공장형 축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저지하기 위해 개에게 생선만을 먹여야 하고 동물 보호 단체들이 주목을 받기 위해 실험실의 동물을 풀어주고 실험실을 파괴하는 행위나 공공시설에 폭탄을 터뜨리는 것 등의 모습을 옹호하는 모습을 보일 때는 거북한 느낌이 들어 책을 읽기가 힘들었다. 차라리 그에 대한 내용을 책에서 언급하지 않았더라면 의식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점진적으로 더 큰 사회적, 정치적인 변화를 유도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운 마음이 든다.

이 책에서 '수의사' 라는 말의 등장은 두세 번 정도이다. 그 등장에서 수의사는 동물 복지에 앞장서는 모습이 아니라, 대기업에 고용되어 실험의 정당성을 역설하고 실험동물들에게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대중과 언론에 보이기 위한 홍보 수단으로서, 광우병의 위험을 가장 먼저 알았 으면서도 정치적 이유로 그 사실을 숨겨온 모사가로서 등장하였다. 실제로 수의사라는 직업은 그러한 문제들에 사회가 가장 먼저 자문을 구해 올 집단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문제에 대해 심각한 고민까지는 아니더라도 모두가 문제의식과 각자 나름의 견해를 지니고 있어야 부끄러운 과거를 되풀이 하지 않고 나아가 여론과 사회 변화의 중심축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이 책은 수의사로서 접하게 될 많은 영역들의 윤리적 문제에 대한 고찰을 하게 해 준 계기가 되었고, 변화가 필요하다면 그 변화를 우리 수의사들이 주도해야 할 것이라는 의식을 가지게 해 주었다. 미래에 수의사가 될 사람들은 물론이고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선배 수의사들도 꼭 한 번 읽어 보고 생각해 보길 바라는 책이다.



- 저자 : Sy Montgomery (사이 몽고메리)
(번역 : 이종인)
- 원제 : The Good Good Pig
- 출판사 : 서울, 세종서적
- 출판년도 : 2009년

돼지의 추억

- (2007-15516) 박성환 -

300kg이나 되는 식용돼지를 애완용으로 키우는 것을 상상해 본적이 있는가? 영국의 뉴햄프셔 지역의 시골마을에서 사람보다도 더 사람 같은 돼지 이야기를 듣는다면 놀라움을 금치 못할 것이다. 사실 이 책의 번역판 제목인 “돼지의 추억”은 원서의 제목인 “Good good pig”의 의미를 담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책의 마지막 장을 닫을 때면 알겠지만 “추억”이라는 한정된 단어로 돼지의 의미 있는 14년의 존재감을 표현하기엔 ‘매우’ 역부족이기 때문이다. 우선 첫 장을 펴면 돼지의 이름에서 작가의 재치를 엿볼 수 있다.

‘크리스토퍼 호그우드’ 그는 영국에서 사랑받는 지휘자 중 한명으로, 평소 클래식을 사랑하던 몽고메리 부부는 이 이름을 따서 돼지에게 붙여주었다. 더군다나 호그(hog)는 돼지를 뜻하는 말이므로 돼지에게 이 정도의 멋있고 알맞은 이름이 어디 있겠는가? 이렇게 돼지를 사랑하는 작가는 마치 광적인 돼지 예찬론가 처럼 보인다. 어떻게 보면 더럽게 보일 수 있는 돼지의 식탐을 행위예술가에 비유하고, 돼지의 배설물에 대해서도 심미적인 관점을 볼 수 있다. 심지어 그녀의 어머니가 암으로 죽어가는 상황에서 노화로 인해 드러눕게 된 크리스(크리스토퍼 호그우드)와 그 경중을 비교하고 있었

다. 유교사상이 강한 한국에서 태어난 나로서는 이러한 사실이 가히 충격적이었다. 어떻게 돼지와 사람을 같은 선상에 올려놓을 수 있는가? 그러나 이런 ‘크리스 예찬론’은 그녀만의 전유물이 아니었다. 작가는 그녀의 시골동네, 넓게는 매스컴을 타서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에게 무한한 사랑을 주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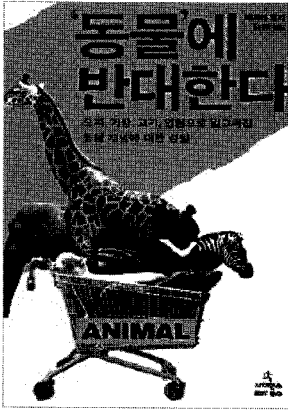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이 돼지에게 열광하게 되었을까? 일반적으로 돼지는 더럽고, 불결하며 우둔한 이미지로 비추어진다. 예수는 인간속의 악마를 돼지 속으로 집어넣은 후에 높다높은 절벽 끝으로 밀쳐내지 않았다. 하지만 작가는 돼지의 인간적인 면을 보았으며, 실존 존재가 곧 사유가 되는 돼지의 원초적인 매력에 이웃을 끌어들이는데 성공하였다.

사실 크리스는 뭔가 특별한 일을 한 게 아니다. 그저 밥 먹기, 마사지 손길에 드러눕기, 외부의 반응에 반응하는 정도의 본능적인 행동을 한 것이다. 하지만 중요한건 크리스가 사람들 곁에 언제나 있었던 것,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었던 것이다. 이런 존재감으로 말미암아 이웃의 정성어린 음식찌꺼기 공급이 14년간 가능하였고, 크리스의 여가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는 많은 친구, 잠시 외출해 길을 잃은 크리스의 귀가를 도와주는 친구들이 생기게 된 것이다. 사람들은 크리스를 하나의 가족처럼 생각했으며, 크리스가 죽을 때는 큰 상실감을 표현할 길이 없어 신문 ‘부고’란에 한편의 글을 통해 그 아쉬움을 달래기도 했다. 이렇듯 사람들의 관심으로 자칫하면 어린돼지들의 생존경쟁에서 밀려나 죽을 수도 있었던 무녀리(한 무리 새끼 중 가장 병약한 돼지) 크리스의 이야기가 이렇게 생겨나게 된 것이다.

크리스의 이야기는 한국에서는 보기 힘든 산업동물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보여준다. 그래서인지 작가의 생각과 서술은 약간 지나치다 할 정도의 거부감이 들기도 한다. 하지만 이런 느낌이 드는 자체가 반려동물에 대한 편견이 머릿속에 깊게 각인되어있다는 증거가 아닐까?

돼지 크리스는 울타리 안보다 울타리 바깥을 바라보게 했으며, 주변의 사람들에게 순수한 기쁨을 선사해주고, 암, 이혼 등으로 인한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주었으며, 더 나아가 지역 공동체에 순수하고 원초적으로 사랑 할 수 있는 ‘행복 바이러스’를 퍼트렸다.

이만하면 충분히 반려동물의 역할을 한 것이 아닐까? 어쩌면 이게 삭막해지는 현대사회의 문제를 치료하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본다. 베이컨, 삼겹살이 아닌 하나의 소중한 인격체로 돼지를 바라볼 수 있게 한 작가 몽고메리의 시선에 경의를 표하며 글을 마친다.



- 저자 : Fudge, Erica
(번역 : 노태복)
- 원제 : Animal
- 출판사 : 서울, 사이언스북스
- 출판년도 : 2007년

에리카 퍼지의 「'동물'에 반대한다(원제 : Animal)」를 읽고

- 오진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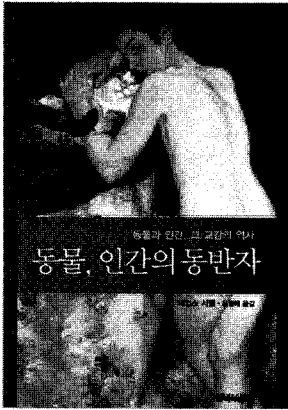
우리 주위에는 식량의 원료, 실험의 모델 등으로 이용되는 동물이 있고,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문학, 영화 등의 주인공으로서 사랑받고 존중받는 동물이 있다. 같은 '동물'이라는 존재들의 모습이 이토록 극과 극으로 보여진다.

사실 이 '동물'이라는 개념을 잘 들여다보면 모순되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그 모순은 인간이 동물들을 그 자체적으로 인식하지 않고 인간 중심적인 가치관에서 받아들인 '동물'이라는 존재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저자는 이것에 대해 말하고 있다. 인간은 인간 중심적인 시각으로 동물을 인간화, 비인간화하여 인식한다. 이것은 동물을 인간이 이용할 수 있는 객체로서 바라보는 입장뿐만 아니라 동물을 존중받아야 할 주체로서 바라보는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전자의 경우, 보통 동물은 인간과 같은 지능이 없고 따라서 자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보다 하등하다고 비인간화하며 우리에게 그들을 이용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즐거움을 위해 동물을 사냥하는 사냥꾼의 경우, 그들에게 동물은 지능이 있는 인간화된 존재이다. 사냥당하는 동물에게 사냥꾼과 사냥개들의 움직임을 읽고 도망칠 궁리를 할 지능이 없다면 이 사냥꾼들에게 사냥이라는 스포츠는 단순한 채집과 다를 바 없게 된다. 후자의 경우, 동물 역시 인간보다 미약할 지라도 지

능이 있고 생각하는 자아가 존재한다고 인간화한다. 하지만 이는 역설적이게도 동물을 인간화하여 보는 시각에 의해 종종 실패로 돌아갔다. 많은 연구가 동물의 행동을 인간화하여 의미 없는 행동을 의미 있게 만들며 잘못된 해석을 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침팬지에게 수화를 가르친 연구의 경우, 연구자들이 침팬지의 의미 없는 일상적인 몸짓 역시 수화로 해석하였고, 상황에 맞지 않는 의미를 나타내는 행동을 억지로 해석하였다.

동물을 참되게 이해하려면 인간중심적인 가치관에서 완전히 벗어나 동물을 '동물'이 아닌 동물 그 자체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여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 인간은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동물의 방식으로 동물을 이해할 수 없다. 인간이 무언가를 인식하려면 그 무언가는 반드시 인간화 또는 비인간화를 거쳐야 한다. 인간은 동물을 동물 그 자체로 받아들일 수 없고 인간화 또는 비인간화하여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동물에 대한 이해를 아주 포기해버리는 것보다는 동물 그 자체를 이해하기위한 노력을 계속하는 것이 더 의미 있을 것이라고 저자는 끝을 맺고 있다. 이 책은 인간의 이익을 위한 동물의 이용에 대한 찬성도, 반대도 아닌 중립적인 입장에서 서려고 노력하며 각각의 시각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은 각각의 입장에 선 사람들에게도 추천할 만하지만, 훗날 많은 동물을 치료하여 살릴 수도 있는, 하지만 실험시설에 들어가 많은 실험동물들을 죽이게 될 수도 있는, 그러하기 때문에 동물에 대한 가치관에 혼란을 가질 수 있는 예비 수의사들에게 매우 알맞다고 생각된다. 물론 책의 저자가 서구문화권에 속해있기 때문에 인간의 동물에 대한 인간중심적인 가치관의 기원을 서구에 뿌리깊이 박힌 그리스도교에서 찾는 등 비서구문화권인 우리들에게는 많은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책이 현재까지 동물 윤리 가치관을 세우는 데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 저자 : Serpell, James, 1952-
(번역 : 윤영애)
- 원제 : In the company of animals :
a study of human-animal
relationships
- 출판사 : 서울, 들녘출판사
- 출판년도 : 2003년

동물들과의 교감을 통한 인류사회의 발전을 꿈꾸며

동물, 인간의 동반자 - 제임스 서펠

- 최용연 -

현대사회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애완동물에게 애정과 사랑을 듬뿍 준다. 심지어 자신들에게 애완동물이 경제적, 현실적 공헌을 주지 못하더라도 말이다. 그리고 실질적인 경제적, 영양학적 도움을 주는 돼지나 소 등 산업동물에게는 아무런 동정도 없이 생명이 없는 물건처럼 대한다. 저자의 생각은 여기서부터 뻗어나간다. 이 책은 애완동물이 현재와 같은 지위를 갖게 되기까지의 역사와 그 흐름 속에서 나타났던 수많은 쟁점, 논쟁, 갈등 등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논의의 시발점이 된 산업동물과 애완동물의 처지에 대한 고찰에서부터 이 책의 제목처럼 동물을 인류의 동반자로 봐야한다는 책의 마지막에 이르기까지 글은 끊임없이 화두를 던지고 논거와 예시를 제시하며 매끄럽게 풀려나간다. 여기에 저자는 자신의 주장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상충되는 의견을 같이 제시함으로써 우리에게 중립적으로 생각할 기회를 주고, 다음 화두로 넘어갈 다리를 자연스럽게 만든다.

인류는 산업화가 이루어진 뒤, 조금 더 멀리부터 보면 농경화가 이루어진 뒤부터 문명과 사회의 발전만을 위해 달려왔다. 그 결과 원시사회에서 가족과 같이 지내던 가족과 동물들은 점점 최대의 이익만을 얻기 위한 단순한 상품이 되고 말았다. 중세시대부터 산업혁명 시기에는 이러한 경향이 특히

심했었다. 그나마 근대에 들어와서 동물보호법이 제정되고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 경제력이 늘어나면서 동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동물들의 상황이 좀 나아졌지만 아직까지 인간과 함께하는 모든 동물이 동반자적인 대우를 받는 것은 아니다. 애완동물을 제외한 산업동물과 야생동물들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는 그대로라고 봐도 무방하다. 독선적인 태도로 앞으로만 나아가며 주위를 파괴해온 인류의 발전과 성장은 이제 한계에 다다랐다. 여기서 저자는 사람들이 애완동물을 키우며 그들과 교감하고 나아가 다른 야생, 산업 동물들에게까지 교감할 수 있게 된다면 그들의 터전을 함부로 파괴하지는 못하게 되진 않을까 하는 전망을 조심스럽게 던진다. 물론 동물과 절대적으로 평등한 지위를 갖게 되는 날이 오리라고는 저자조차 부정적으로 생각한다. 다만 좀 더 인식 밖에 있던 존재들을 조금 더 느낄 수 있다면 사람들이 약간이라도 변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기대하는 것이다.

이미 인류는 동물을 하급하고 수준 낮은 생물로 여기던 시대를 지나 다시 가족처럼 함께 나아가는 존재로 받아들이는 시대로 나아가고 있다. 이 책의 초판이 나온 1986년 당시에는 피상적으로 제시만 되었던 동물들이 사람에게 심리적으로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들이 재판이 나온 1996년엔 실제 연구결과로 발표되었다. 14년이 지난 현재는 애완동물의 보급이 많이 늘어났고, 인류 사회도 동물과의 관계를 재구축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러한 경향으로 볼 때 앞으로 시간이 좀 더 지나 우리 주변에 동물들이 더 많아진다면 인류는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을 얻고, 개개인들은 애완동물에게 좀 더 많은 마음의 안정을 수 있지 않을까하는 기대를 이 책은 품게 만든다. 